

지급 결제 신용카드 위주로

지난해 현금보다 더 자주 사용해... 남성 '지갑 속 현금' 평균 7만4000원

지난해 우리나라 성인들은 지갑에 평균 7만4000원을 갖고 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급 결제 수단으로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더 자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2015년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결과 및 시사점'에 따르면 개인이 평소 지갑 속에 보유하는 현금은 평균 7만4000원으로 전년 평균 현금보유액(7만7000원)보다 3000원이 줄었다.

성별 기준으로는 남성(7만6000원)이 여성(7만1000원)보다 더 많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8만5000원)가 가장 높은 반면 20대(5만 원)는 가장 낮아 고연령일수록 지갑 속 보유 현금이 더 많았다. 지난해 가장 많이 사용한 지급수단

은 이용 건수 기준으로 신용카드(39.7%)가 꼽혔다. 지난 2014년까지만 해도 현금 이용비중(38.9%)이 신용카드 비중(31.4%)보다 높았으나 이번에 추월당했다. 지난해 현금 비중은 38%로 2위로 밀려났다.

금액 기준으로도 신용카드 비중이 40.7%로 가장 높았다. 이어 현금(29.0%), 체크 직불카드(14.8%) 계좌이체(13.8%) 순으로 나타났다.

1인당 신용카드 보유장수는 1.91장으로 조사됐다. 이어 체크·직불카드는 1.26장, 선불카드·전자화폐는 1.01장으로 나타났다. 1인당 하루평균 지급수단 이용건수는 2.1건으로 전년(2.2건)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일평균 이용금액도 3만5000원으로 전년(3만9000원)에 비해 4000원이 줄었다.

결제상예금계좌는 1인당 은행에 평균 1.87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1.95개)보다 줄어든 수치다. 결제상예금의 월평균 잔액은 300만원 이상이 33.1%로 가장 높았고, 100만~300만원 미만이 31%, 100만원 미만이 29.6%로 뒤를 이었다.

월평균 예금잔액이 마이너스(-)인 응답자는 전체의 6.3%로 전년(5.4%)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이번 조사는 한인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표본 2500가구를 선정해 직접 방문해 대면 조사 방식 등으로 지난해 8월28~9월 24일까지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1.9%p다. /김민근 기자

지카바이러스 공포...여행사 예약취소 시작

여행업계 태고·허니문 여행지 동남아 예의주시... 안전 문의·취소 9건

세계보건기구(WHO)가 소두증을 유발하는 지카(Zika) 바이러스 확산에 대해 국제보건비상사태를 선포함에 따라 국내 여행업계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월 업계에 따르면 지카 바이러스는 임신 초기 임신부가 감염되면 태아의 두뇌가 제대로 성장되지 못해 소두증 신생아를 출산할 위험이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아웃바운드 여행사들은 태고 여행과 허니문 여행을 많이 떠나는 여행자를 중심으로 바이러스 확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중남미 국가는

장거리로 수요가 크지 않은 지역이고, 관광객 비중이 높은 동남아 지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아직 해당 지역에 대한 취소 발생과 안전 문의는 드물다"고 말했다.

모두투어 관계자는 "임신부 여행객의 안전 문의가 하루 3~4건 정도 있다"며 "동남아나 멕시코 '칸쿰' 등 신혼 여행지에 바이러스가 퍼졌을 가능성에 대해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밖에 일반 여행객의 경우 취소나 안전 문의는 없다"고 밝혔다. 여행박사 관계자는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언론 보도 뒤 동남아 지역

여행객의 안전 문의 4건, 실제 취소는 5건으로 확인됐다"며 "임신부가 속한 그룹 위주로 문의가 들어왔으며 아직 큰 동요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숲 모기가 옮기는 지카 바이러스는 주로 아프리카나 태평양섬 지역에서만 발생되다 지난해 4월 브라질에서 감염자가 발생한 뒤 중남미 지역 24개국으로 급속히 퍼지고 있다.

최근 2개월 사이 아시아에서는 태국에서 환자가 발생했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에서는 해외여행을 한 적이 없는 현지인이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성주 기자

'라면 담합' 의혹 벗은 농심 1080억 돌려받는다

농심이 라면 가격을 담합해 올렸다는 의혹에서 벗어나며 지난 2012년 물었던 1080억원의 과징금을 돌려받게 됐다.

2월 농심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라면 가격 담합 행위와 관련한 시정명령 및 1080억700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직권을 취소했다고 공식했다.

농심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파기 환송함에 따라 라면값을 담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됐다"며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과징금을

대법원, 서울고법 판결 파기 환송

환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2년 농심은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삼양식품과 함께 라면 가격을 담합해 올렸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80억7000만원을 과징금으로 부과 받았다.

이에 불복한 농심은 서울고등법원에 "과징금 1080억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과징금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3년 기각됐다.

당해 12월 다시 대법원에 상고 절차

를 진행했고, 대법원은 지난 2015년 12월24일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에 대해서도 라면 가격을 담합한 사건과 관련, 과징금 부과 처분을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가 부과 받은 과징금은 각각 98억4800만원, 62억6600만원이었다. 삼양은 120억6000만원을 부과받았으나 리나연식(자진신고자 감면제도)로 과징금을 면했다.

/이성주 기자



한가득 쌓인 설 선물세트 2월 서울 서초구 동합하나로클럽 양재점 백코너에서 고객들이 접수한 택배를 직원들이 추위 속에 포장직업과 배송직업을 하고 있다. 농협유통은 선물세트 3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무료택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관장 홍삼 인기 매월 달라

설·추석 가장 많이 판매

1년 열두 달 홍삼 판매는 꾸준히 높지만, 매월 인기 제품은 서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KGC인삼공사에 따르면 '정관장 홍삼'이 가장 많이 판매되는 시기는 명절인 설과 추석인 2월과 9월이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값 비싼 프리미엄 홍삼 판매가 활발하다.

1월에는 갱년기 여성용 제품인 '화애락'이 베스트셀러다. 2월은 설 명절을 맞아 가족, 친지의 건강을 위한 선물로 '홍삼'의 인기가 높다. 특히 설 명절에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평소보다 높은 가격대의 선물을 찾는 고객들이 많다. '황진단' 매출이 월평균 판매량 대비 2배 이상 높다. /이성주 기자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은 중고등학생용 홍삼 제품인 '하이패스'가 인기이다. 4월은 봄을 타는 중년남성이 '남성갱년기'를 호소하며 홍삼을 찾는다. 봄이던 4대 이후 중년 남성의 남성호르몬이 20%가량 감소해 피로 누적, 우울증 등이 찾아와 남성홍삼제품인 '울칸'이 인기이다. 또 5월은 중장년 남성을 위한 제품인 '홍진용'과 중년 여성용 제품인 '화애락'이 어버이날과 맞물려 매출이 55% 가량 증가한다.

이밖에 6~7월은 '시원한 홍삼과 '홍삼콜', 8월은 '홍삼정' '홍삼분말'이 인기이다. 추석이 있는 9월은 '전복삼', 10월은 '황간청', 11월은 '홍이장군', 12월은 '홍삼정 에브리타임' 등이 매출을 이끌었다. /이성주 기자

익산국토청, 1조3000억 사업 발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하대성)은 2일 도로와 하천사업 등 총 1조 3000억원 규모의 201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사업은 군장대교를 비롯한 총 56건의 도로사업에 6,866억원, 고부천 침수대책 등 178건의 하천사업에 2,953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태안-산내 등 6건의 도로사업과 만경강 신타지구 등 5건의 하천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익산국토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4분기에 전체 예산의 30.4%(3,938억원) 이상을 집행하고, 상반기까지 60.4%(7,824억원) 이상을 집행할 예정이다.

하대성 익산국토청장은 "올해 계획된 도로와 하천 등 SOC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특히 미래지향적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등에 있어 지자체는 물론이고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적인 협업 노력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신광영 기자

SW융합 마케팅 지원 기업 선정

전북테크노파크는 SW융합 마케팅 지원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지원사업에는 지난 1월5일부터 27일까지 52개사가 신청했고 최종 14개 기업(4:1)이 선정됐다.

선정된 기업은 (주)립솔루션, 아이티스테이션, 권웨이브, 진테크 그룹, 나노포커스레이, 엠에이치소프트, (주)트윈테크 디스코즈, 공감미디어, 오피미디어, (주)이모션, (주)에스에엘, (주)이설리반학교 등 총 14개사다.

이들 기업은 SW/IT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홍보물 제작 등의 마케팅을 지원받는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지원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의 인지도 제고와 판매 촉진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전북테크노파크 백두옥 원장은 "농생명 SW융합클러스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각종 지원이 필요하다. 전북테크노파크는 기업의 수요에 따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

법원, 쿠팡 '로켓배송'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택배업체들이 소셜커머스업체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를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조용현)은 2일 국내 주요 택배업체 11곳이 쿠팡을 운영하는 포워드벤처스를 상대로 "로켓배송 이름 사용과 서비스를 금지해달라"고 낸 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성주 기자

전북 1월 소비자물가 지난달 대비 상승

전북지역 1월 소비자물가가 지난달 대비 0.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에서도 0.5% 상승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전북 농축수산물물은 전월대비 1.4% 상승했고 전년동월대비 2.3% 상승했다.

공업제품은 전월대비 0.3% 하락했으며 전년동월대비 1.3% 하락했다.

서비스는 전월대비 0.6% 상승했다. 세부적으로는 학원비(중학생:1.7), 딸기(31.9), 학원비(초등학생:2.4), 배추(27.1), 소주(외식:10.2), 외래진

료비(1.9), 학원비(고등학생:1.9), 토마토(32.0), 쓰레기봉투료(17.8), 풋고추(17.3), 세탁세제(8.2), 파(6.3), 샬롯(5.7), 화장지(5.1), 마늘(2.8), 음악학원비(1.6), 빵(1.0), 치과진료비(0.6)이 상승했다.

반면에 생활물가지수는 전월과 보합세를 유지했지만 전년동월대비 0.1% 하락했다.

지출목적별 부분에서 교통 부문(-4.8%), 주택·수도·전기·연료 부문(-1.3%), 통신 부문(-0.2%) 각각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광영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